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 현 선**

(전북대학교)

정 익 중

(덕성여자대학교)

구 인 회

(서울대학교)

[요 약]

우리나라 빈곤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장애나 질병으로 실질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불가피하게 가족 내에서 다른 성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빈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사나 돌봄 노동과 같은 성인역할을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에서 성인역 부담의 기제를 규명하고자 했다. 즉, 아동이 성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부담이 그들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기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자치구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1차년도(2004년도)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곤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빈곤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입 전략과 실천 지침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빈곤, 빈곤아동, 사회정서적 발달, 성인역 부담, 부모역할 아동, 역할 전도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42-B00114).

** 주저자, 교신저자

+ 힘겹게 시작한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의 원년자료를 수집하고 추적,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신전북대학교의 배진희 선생님, 이재경 선생님, 윤현선 선생님과 서울대학교 김광혁 선생님 등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1. 문제제기

최근 우리사회에서 빈곤 아동의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아동 1,157만명 중 약 10%인 110만명 정도가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추정되었으며, 전체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9.8%로 분석된 바도 있다 (류연규·최현수, 2003). 여기에 차상위 저소득가구의 아동까지도 포함하여 추정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이와 같이 빈곤 아동의 양적 규모에 사회적 관심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빈곤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Bradley and Whiteside-Nansell, 1997; McLoyd, 1998; Duncan and Brooks-Gunn, 1999). 다시 말해서 빈곤아동에 대한 초기 선행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발달에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위험을 경고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의 사회적, 관계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빈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분석에 강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가족과정이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강조를 두며,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부갈등, 양육 태도나 훈육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자인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부 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는 '비일관적이고 혹독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빈곤가정 부모의 잘못된 양육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Lempers, Clark-Lempers, and Simons, 1989; Conger, Ge, Elder, Lorenz, and Simons, 1994; Felner, Brand, Bubois, Adan, Mulhall, and Evans, 1995; McLoyd, 1998).

이러한 논의들은 상당히 이론화되고 경험적으로 지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가족의 역기능 특히, 부모 측면의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므로써 가족 내 아동 역할에 대한 관점은 간과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한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빈곤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 처한 아동은 가사일을 돕거나 어린 동생을 돌보는 것과 같은 성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역할에서 초래되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Meredith, 1992; Becker, Aldridge, and Dearden, 1998; Winton, 2003; 이상균·박현선, 2000) 기존 연구들에서는 아동 관점에서 성인역 부담의 의미를 조명하는 논의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실제 우리나라 빈곤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장애나 질병으로 실질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머니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 일선에 나가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아동 양육이나 가사 노동을 수행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연장아동의 차지가 되곤 한다. 즉, 우리나라 빈곤 아동은 불가피하게 가족 내에서 다른 성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역할 대체가 아동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가족 내에서 아동이 성인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부모와 기능적, 정서적으로 역할이 전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의 정서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 자신이 갖는 외부로부터의 관심, 위안, 훈육에 대한 욕구는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hase, 1995). 이와 같이 빈곤이나 여타의 이유로 인해 아동이 자신의 욕구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성인역할, 예를 들면 형제들을 부모 대신 돌보거나 부모와 역할이 바뀌어 '부모의 부모'가 된 경우에 아동들은 과도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만성적 분노나 방어적 태도, 죄책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수 있다(Winton, 2003). 이는 단순히 인지적인 왜곡 뿐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아동이 가정에서 누군가를 돌보는(care-giving) 역할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일정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성인으로서의 역할에 투여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해당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교우관계 형성이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기 때문이다(Meredith, 1992; Becker et al., 1998; Winton, 2003).

국내에서 이러한 가정 내 부모-자녀간 역할 전도 현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성인아이'라는 용어로 목회상담이나 가족치료 등의 임상 영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연구들(김진영, 1997; 고병인, 1998; 김홍운, 2000; 이세영, 2000)은 주로 알코올 중독과 같이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난 성인역 아동의 특성과 치유에 관한 연구들로서 주로 가족치료 이론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내적 치유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 수준이 개입의 필요성과 방향에 치우쳐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관점을 달리하여 '성인역 아동'에 접근한 이상균과 박현선(2000)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부재하여 성인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인역 부담의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고, 특히 성인 역할 부담은 일반아동에 비해 소년소녀가정 청소년과 같은 고위험 상황 아동에게 더욱 부정적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성인역 부담을 야기하는 것이 부모 역할 부재와 같은 가족의 구조적 결손인지 아니면 빈곤한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의 역기능에 의한 결과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을 조사함으로써 대표성 있는 표본을 구하는데 실패하였고, 이러한 자료수집 상의 한계가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의 문제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경로로 이루어지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성인역 부담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성인역 부담이 빈곤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야기되며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한편 본 연구는 방법론의 측면에서도 빈곤과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즉, 빈곤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빈곤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빈곤한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분석에 포함시키고자 했으며 빈곤의 측정도 소득과 가구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또한 빈곤과 성인역 부담, 사회정서적 발달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모형화한 후에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적 시도는 빈곤이 아

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인역 부담의 역할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보다 유용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목적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빈곤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2.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 성인역 부담과 같은 빈곤 동반 위험요인들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가?
3. 빈곤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경로를 설명하는 최적의 모델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논의

1) 빈곤, 구조적 결손, 가족 기능과 사회정서적 발달

빈곤과 아동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건강, 인지, 학업성취 등의 영역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 영역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해 왔다(Sameroff, Gutman, and Peck, 1993; Felner et al., 1995; Bradley and Whiteside-Nansell, 1997; McLoyd, 1998; Duncan and Brooks-Gunn, 1999; Luthar, 1999; Eamon, 2001; 구인회, 2002; 윤혜미, 2005).

맥리오드와 셰나한(McLeod and Shanahan, 1993)의 연구는 빈곤한 환경에서 생활한 아동이 우울, 불안, 의존성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반사회적 행동, 과잉행동, 또래갈등, 고집센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렘퍼스와 클락 렘퍼스, 시몬스(Lempers, Clark-Lempers, and Simons, 1989)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결핍이 청소년의 우울, 외로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비행 및 약물사용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문제 영역별로 사회계층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울, 불안, 의존성과 같이 내재화되는 문제보다 다툼, 충동성, 불복종과 같은 외현화되는 문제에서 계층의 효과가 보다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생애 초기 0세부터 4세까지의 빈곤 경험이 이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빈곤상태에 있는 기간이 길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cLoyd, 1998). 그러나 인지적 발달이나 학업성취에서의 차이에 비교하면 사회정서적 발달은 상대적으로 빈곤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Pagani, Boulerice, and Tremblay, 1997; McLoyd, 1998).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다소 상반된 결과가 있지만 빈곤의 간접효과 즉, 다양한 개인 및 환경 요소를 매개로 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아동의 기질, 성별, 건강문제 등과 같은 개인별 변수를 매개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거나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빈곤의 영향을 매개한다는 설명이다(Eamon, 2001).

우선 구조적 결손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편모 가정의 경우 일과 양육이 일인에게 집중되어 실직 등과 같이 직업적, 경제적 상실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어린 자녀가 많은 편모 가정일수록 보다 많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McLoyd, Jayaratne, Ceballo, and Borquez, 1994; Bradley and Whiteside-Mansell, 1997). 그러나 가족구조와 빈곤 간의 선후관계를 확정짓기가 매우 어려워서 빈곤 상황에서 구조적 결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매개 효과보다는 구조적 결손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나 구조적 결손이 다른 매개변수를 통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은 편이다(오계훈·김경근, 2001; 오승환, 2001).

한편 빈곤의 효과를 매개하는 주요 변수로 가족 내 역기능을 고찰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비일관적이고, 부적절한 양육, 재정적 갈등으로 인한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논의들이다(Brody, Stoneman, Flor, McGray, Hastings, and Conyers, 1994). 이들 연구들에서는 빈곤이나 경제적 불이익은 부정적 부모-자녀 상호작용, 일관적이지 못한 양육태도, 낮은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 및 기대, 부부갈등, 부모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자녀의 학업 실패 및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elner, Brand, DuBois, Adan, Mulhall, and Evans, 1995; Eamon, 2001).

보다 심각한 역기능 상황인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아동이 노출된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각한 아동학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다중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보다 일반적으로는 인지 및 정서체계를 왜곡시켜 불안이나 우울, 손상된 자아감 등을 유발시키게 된다(Briere, 1992).

이와 같이 빈곤과 아동발달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Conger et al., 1994; Sampson and Laub, 1994; Brody, Stoneman, Flor, McGray, Hastings, and Conyers, 1994)에서 빈곤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논의가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중요한 동반 위험요소이며, 부모의 적대적이나 강압적인 양육태도, 어머니의 우울 등과 같은 가족기능 관련 매개변수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uncan, Brooks-Gunn, and Klebanov, 1994).

2) 성인역 부담의 개념 정의와 유형

조기 성숙이나 성인역 부담의 개념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과 같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실질적인 결손을 경험하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나 가족치료 관련 문헌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가족을 돌보는 성인역 아동들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 유형이 있다. 가족치료관련 문헌에서 성인역 아동의 두 가지 역할은 '부모를 대신해서 양육자가 된 아동(Parental children)'과 '부모의 부모가 된 아동(parentified children)'으로 대별된다.

부모대신의 양육적인 역할을 하는 아동들은(parental children) 대부분 형제들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신의 또래이기도 한 형제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나 숙제를 봐주고, 훈육하기에 이르기가

지 다양한 부모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전형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약물남용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동생들을 그러한 다양한 유형의 학대로부터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해 애쓰는 연장 아동의 역할이 그것이다(Jurkovic, 1997; Winton, 2003).

한편 자신의 부모와 역할이 전도된 아동들(parentified children)은 자신의 부모를 돌보는 즉,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한다. 부모화(parentification)된다는 것은 배우자나 자녀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것 같은 가족관계의 주관적인 왜곡을 의미한다(Boszormeny-Nagy and Spark, 1973; Jurkovic, 1997). 이러한 아동들은 일로 지친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에 맞추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만성적인 신체 또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의존이 있어서 부모로서의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 아동들이 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상처받거나 구금, 군입대, 직장 근무 등의 사유로 배우자와 떨어지게 된 경우에도 아동들은 부모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Winton, 2003; Barnett and Parker, 1998).

요컨대 성인역 부담이란 부모의 실질적, 정서적 역할 부재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성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험하는 정서적 과부하를 의미한다.

3) 아동의 성인역 부담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인역 부담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성인역을 하는 아동을 일탈이나 병리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와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규범적인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주류는 병리로 보는 관점 즉, 성인역을 하는 아동 양육자(child caretaker)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들이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아동이 피보호자의 위치에서 가장의 역할을 떠맡음으로써 발생하는 전도된 역할이 성장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성인역 부담을 안게 된 아동은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욕구나 목적, 자율성 등을 자주 희생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으로 인한 만성적인 분노와 방어적인 태도, 죄의식을 갖게 된다고 논의한다(Celani, 1994; Chase, 1999; Godsall, Jurkovic, Emshoff, Anderson, and Stanwyck, 2004).

다른 사람들 돌보아야 하는 역할부담을 가진 아동의 경우 성장해서도 지나치게 심각하고, 경쟁적이며, 강박적인 완벽주의자, 자기학대적인 성격장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성격 경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친밀한 대인관계 양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의존적이고, 계속 보채고, 무능력해서 자신만이 돌봐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대상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김진영, 1997; 김홍운, 2000; 이상균·박현선, 2000; 이세영, 2000; Jones and Wells, 1996; Barnett and Parker, 1998; Wells, Glickauf-Hughes, and Jones, 1999).

한편, 발달적인 관점에서 성인역할부담을 보는 학자들도 대부분 성인역할이 초래할 수 있는 병리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즉, 발달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과업을 완수하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아동을 실패의 상황으로 몰아 넣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설사 그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이나 스트레스는 상당한 정서적인 소모를

낳는다는 점에 주목한다(Jurkovic, 1997; Chase, 1999).

일반적으로 아동발달단계에 과부하가 걸리는 부담스러운 상황들은 아동들이 주관적으로 과한 부담감을 느끼는 상황, 아동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책임이 주어지는 상황, 부모와의 역할전도 상황, 아동에게 이롭지 않거나 이익 자체가 고려되지 않은 역할 기대 상황 등을 들 수 있다(Valleau, Bergner, and Horton, 1995).

정신건강 분야와는 달리 사회학 분야에서는 ‘병리’라는 관점보다는 ‘일탈’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일탈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인 기준(statistical norms)과 윤리적인 기준(ethical norms)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사회적 기준이 있다. 통계적인 기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것을 반영한다면 윤리적 기준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서구유럽의 백인 중산층 가족에서는 부모가 반드시 아동의 보호제공자가 되어야 하고, 실제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보호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역할 전도 현상은 윤리적이나 통계적 기준에서 일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권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역할 전도 현상을 무조건 일탈로 규정할 수 없는 면 또한 존재한다.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스페인계, 중국계, 베트남계 가족들 특히 노동자 계급의 빈곤한 가족들에서는 부모와 자녀 뿐 아니라 많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돕고 돌봐 주는 상호 의존적인 역할기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유럽 중산층에서도 유색인종의 가족들 간에는 부모를 돌보거나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아동들을 사회적 규범을 깨는 일탈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직 소수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면 특정 상황 하에서는 이러한 역할이 아동들에게 해로울 수 있지만 반드시 일탈적으로만 볼 수는 없음을 보여준다(Winton,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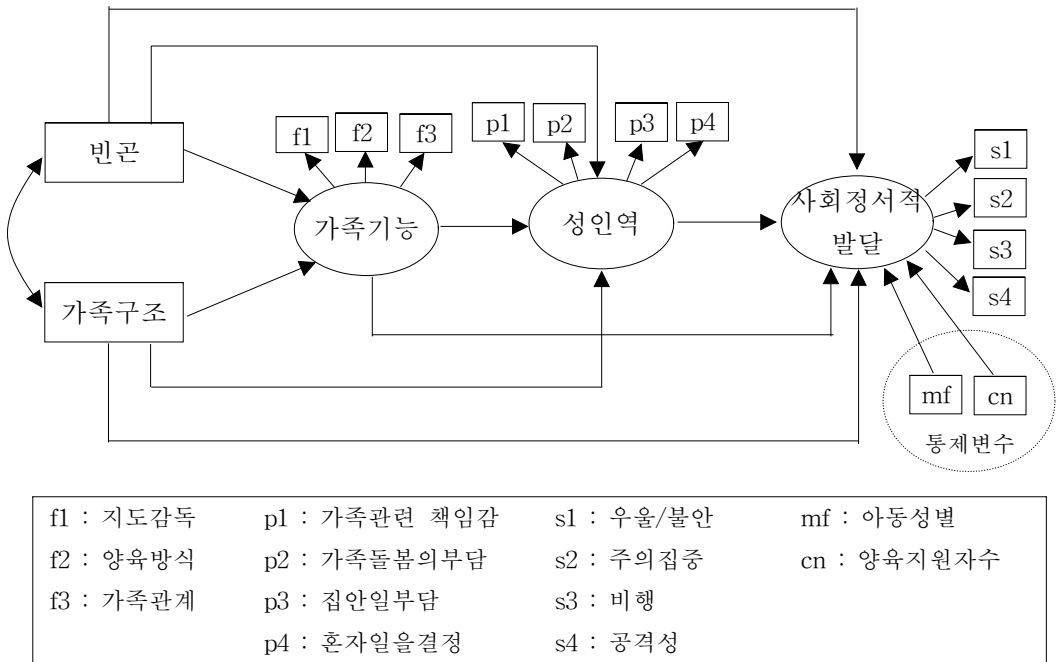
그렇다면 성인역 부담이 아동들에게 보다 해로운 특정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상균·박현선(2000)은 고위험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저위험의 아동들보다 성인역 부담으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이 더 큼을 보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소년 소녀가장 청소년들과 같이 구조적 고위험 상황 즉, 빈곤하고 부모도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에게서 성인역부담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균·박현선, 2000).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성인이 담당해야 할 보호제공(care-giving)의 역할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아동은 일정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역할에 투입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친구관계의 형성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관여를 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동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Meredith, 1992; Becker et al., 1998).

요약하면 아동이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형제를 돌보거나 부모를 돌보는 역할 즉 성인과 같은 돌봄 노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 예컨대,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같은 보호자의 실질적 부재 상황, 부모의 질병이나 학대 등으로 인한 가족의 기능적 결손 상황 등이다. 이러한 고위험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역할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게 되면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한 역할기대가 성인역 부담을 야기하고, 이러한 부담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이론적인 연구 모형에서는 빈곤, 가족구조, 가족기능, 성인역 부담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 경로와 가족기능과 성인역 부담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간접경로, 빈곤과 가족구조가 성인역 부담에 미치는 직접경로를 모두 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설정하고 검증한 후 이론적 의미와 통계적 유의미도 등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매개경로를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모델 개발전략에서 모델생성전략(model generating strategy)에 해당한다(배명렬, 2005). 따라서 본 연구의 기본 모델(이론적 모형)과 비교 모델로 상정된 모델들은 각기 다른 이론에 근거하는 별개의 모델이 아니다. 동일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되, 경험적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로를 순차

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간명하면서도 이론적 설명력은 고루 갖춘 최적의 모델을 찾고자 하는 시도라고 하겠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1차년도 자료이다. SPSC는 2004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인 K구를 선정하여 전체 초등학교를 저소득지역 학교와 비저소득지역 학교로 층화하되,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12개 초등학교를 표집하였다. 표집된 초등학교에서 2004년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과 그 부모 전수에 대해서 서베이를 진행하였다. 아동설문지는 조사원이 학급상황에서 집단 면접을 수행하였고, 부모에 대해서는 아동을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고 부모가 자기기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통계 분석에 사용된 SPSC 자료는 부모와 아동이 쌍체를 이룬 총 1,807개이다. 기술통계분석에 앞서 표본추출확률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조모형분석을 위해 SPSC 원자료를 공분산행렬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력 결핍, 공격성, 비행 문제를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로는 아첸바하(Achenbach, 1991)의 YSR을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1998)가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변안한 K-YSR에서 우울/불안, 주의력 결핍, 공격성, 비행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각각 합산한 원점수를 사용하였다. 아동의 우울/불안은 13문항으로 3점 척도(1=전혀아니다~3=자주그렇다)로 측정되었고, 주의력 결핍은 11문항으로 3점 척도(1=전혀아니다~3=자주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우울/불안과 주의력 결핍은 .82에서 .79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비행과 공격성은 3점 척도(1=전혀아니다~3=자주그렇다)로 각 12문항과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비행과 공격성의 신뢰도는 .61에서 .83으로 비교적 분석에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빈곤, 가족 구조, 가족 기능, 성인역 부담으로 구성된다. 빈곤과 가족구조는 변수의 성격상 측정변수를 직접 구조모형에 투입하였고, 가족기능과 성인역 부담은 잠재변인으로 구성하여 구조모형에 투입하였다.

① 빈곤

빈곤 여부는 이분변수로써 가구의 소득이 가구규모(가구원 수)에 적용되는 빈곤선, 즉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빈곤(1)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비빈곤(0)으로 규정한다.¹⁾

② 가족구조

가족구조는 구조적 결손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규정하였다. 즉, 아동 부모의 결혼 상태가 기혼이며 아동과 함께 거주할 경우(0)와 부모가 별거, 이혼 또는 사별하여 부모 중 한쪽과 거주하거나 부모 외에 다른 보호자와 거주할 경우(1)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③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부모의 지도감독,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관계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로 4문항으로 측정된 것의 합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미국의 Syracuse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HOME scale 중 자녀에게 대화나 따뜻한 격려를 보이는데 대한 6개의 문항(아니다, 그렇다)으로 측정된 것으로 사용하였다. 가족관계는 Hudson의 IFR(Inventory of Family Relation)척도에서 가족구성원들의 관계가 원만하며, 행복한지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로 3문항으로 측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지도감독, 양육방식, 가족관계의 신뢰도는 각각 .80, .62, .66으로 비교적 분석에 적절한 신뢰도를 보였다.

④ 성인역 부담

성인역 부담의 원척도는 이상균·박현선(2000)이 소년소녀가정 청소년에게 활용하였던 1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역할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신뢰도는 .72의 내적일치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 '부모님 대신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해야 하는 부담', '혼자 일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의 4문항에 대해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로 측정된 내용을 성인역 부담의 측정지표로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양육지원자 수'가 투입되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로는 성별과 연령을 들 수 있는데 본 자료의 특성상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동년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연령은 굳이 통제하지 않았다. 한편 양육지원자 수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즉, 보호자의 부재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성인의 존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자(0)와 여자(1)로 구분하였으며, 양육지원자 수는 부모 부재시 아동의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친할머니, 외할머니, 조부모 외 친인척, 기타)의 수를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최저생계비는 2004년 새로 계측된 것을 사용하였다.

모든 구조모형의 종속변수에 통제하고자 하는 두 변수의 영향경로를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통제된 두 변수의 경로들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구조 모형의 모든 기존 경로계수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4) 분석방법

빈곤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경로를 가족기능과 성인역부담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변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하는 동시에 다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가정된 모델의 적합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기 때문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AMOS 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델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가 사용되었다. 비교적합도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Bentler, 1990), Goodness of Fit Index(GFI)(Joreskog and Sobom, 1984), Tucker-Lewis Index(TLI)를 사용했는데 판정법은 지수가 0.9이상이면 보통 적합한 지수라고 판단하게 된다(Newcomb, 1994). 또한 Root Mean Squared Error Approximation(RMSEA) Index도 사용했다. 이 지수는 값이 0.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보고 0.05와 0.08 사이는 보통으로 .08과 .10은 약하고, .10보다 크면 적합하지 않은 지수로 본다(MacCallum, Brown and Sugawara, 1996).

마지막으로 카이제곱차이 검증은 각 구조모형을 비교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4. 결과분석

본 절의 결과분석 서술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통계를 통해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 및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술한 후 구조모형분석에 들어갔다. 구조모형 분석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구조 모델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의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모델 추정의 엄밀성을 높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분석 방법상 측정과 예측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측정의 오류와 인과관계의 오류를 구분하기 위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먼저 검토한 후, 측정모형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최적의 구조모형을 찾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고, 최적의 모델로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가설 검증과 효과 분해를 제시했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2004년 조사시점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써 빈곤층 아동의 비

율이 약 7%이며 비빈곤층 아동의 비율은 9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빈곤층의 경우 기혼이 60.8%, 이혼이 24.2%이며, 별거, 사별, 기타가 각각 7.5%, 5.0%,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빈곤층의 경우에는 기혼이 93.8%로 매우 높았으며, 이혼이 2.6%, 별거가 1.3%, 사별이 0.8%이며 기타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 상태 또한 집단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X^2 = 187.65, p < .01$).

아버지의 학력 수준은 빈곤층의 경우 고졸의 경우가 4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25.0%, 중졸이 17.6%, 대학 중퇴가 6.5%이며 초졸 이하의 경우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빈곤층의 경우에는 대졸 이상이 52.0%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했으며 고졸이 31.6%, 대학 중퇴가 12.4%, 중졸과 초졸 이하가 각각 3.0%와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은 대학을 중퇴하거나 졸업한 경우가 31.5%인 반면 비빈곤층은 64.4%로 두 배 이상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 = 93.18, p < .01$).

어머니의 학력 수준은 빈곤층의 경우 고졸이 5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18.8%이었으며 대학중퇴, 중졸, 초졸 이하가 각각 5.4%, 12.4%, 1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빈곤층에서도 역시 고졸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졸 이상이 32.3%이며 대학 중퇴, 중졸, 초졸 이하가 각각 12.3%, 3.9%, 0.5%로 이들 집단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X^2 = 85.30, p < .01$).

아버지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빈곤층은 취업한 경우가 66.3%이며 비취업한 경우가 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빈곤층은 취업한 경우가 97.6%, 비취업한 경우가 2.4%로 취업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역시 이들 집단 사이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 = 212.31, p < .01$).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빈곤층은 취업한 경우가 59.6%로 비취업한 경우 40.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비빈곤층에서도 취업한 경우가 57.9%로 비취업한 경우 42.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두 집단 모두 취업한 경우가 비취업한 경우보다 약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기간동안 가구주가 6개월 이상 실직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빈곤층이 실직 경험이 있는 사람이 52.7%로 실직 경험이 없는 사람 47.3%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빈곤층에서는 실직 경험이 있는 사람은 17.4%이며 실직 경험이 없는 사람은 82.6%로 많은 수가 실직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집단 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X^2 = 82.35, p < .01$).

요컨대, 성별, 결혼상태, 부모의 학력, 부의 취업여부, 실직경험에 있어서 빈곤층과 비빈곤층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빈곤층의 경우 여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혼, 별거, 사별과 같은 결혼상태의 비율이 비빈곤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빈곤가정 집단에서는 부모의 고졸 이하의 학력 비율과 부의 비취업과 가구주의 실직비율에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아동 성별	빈곤		비빈곤	X ² 검증값
	빈도 (비율)	비빈곤		
남	49 (40.5)	877 (53.0)	7.02**	
여	72 (59.5)	779 (47.0)		
부모의 결혼상태			187.65***	
기혼	73 (60.8)	1,543 (93.8)		
이혼	29 (24.2)	42 (2.6)		
별거	9 (7.5)	21 (1.3)		
사별	6 (5.0)	13 (0.8)		
기타	3 (2.5)	24 (1.5)		
부의 학력			93.18**	
초졸 이하	5 (4.6)	13 (0.8)		
중졸	19 (17.6)	50 (3.0)		
고졸	50 (46.3)	519 (31.6)		
대학 중퇴	7 (6.5)	205 (12.4)		
대졸 이상	27 (25.0)	853 (52.0)		
모의 학력			85.30**	
초졸 이하	9 (8.0)	9 (0.5)		
중졸	14 (12.4)	63 (3.9)		
고졸	62 (55.4)	837 (51.0)		
대학 중퇴	6 (5.4)	201 (12.3)		
대졸 이상	21 (18.8)	529 (32.3)		
부의 취업여부			212.31***	
취업	59 (66.3)	1,574 (97.6)		
비취업	30 (33.7)	39 (2.4)		
모의 취업여부			.130	
취업	65 (59.6)	930 (57.9)		
비취업	44 (40.4)	677 (42.1)		
6개월 이상 가구주의 실직 경험 여부			82.35***	
실직 경험 유	59 (52.7)	285 (17.4)		
실직 경험 무	53 (47.3)	1,350 (82.6)		

*** p < .001,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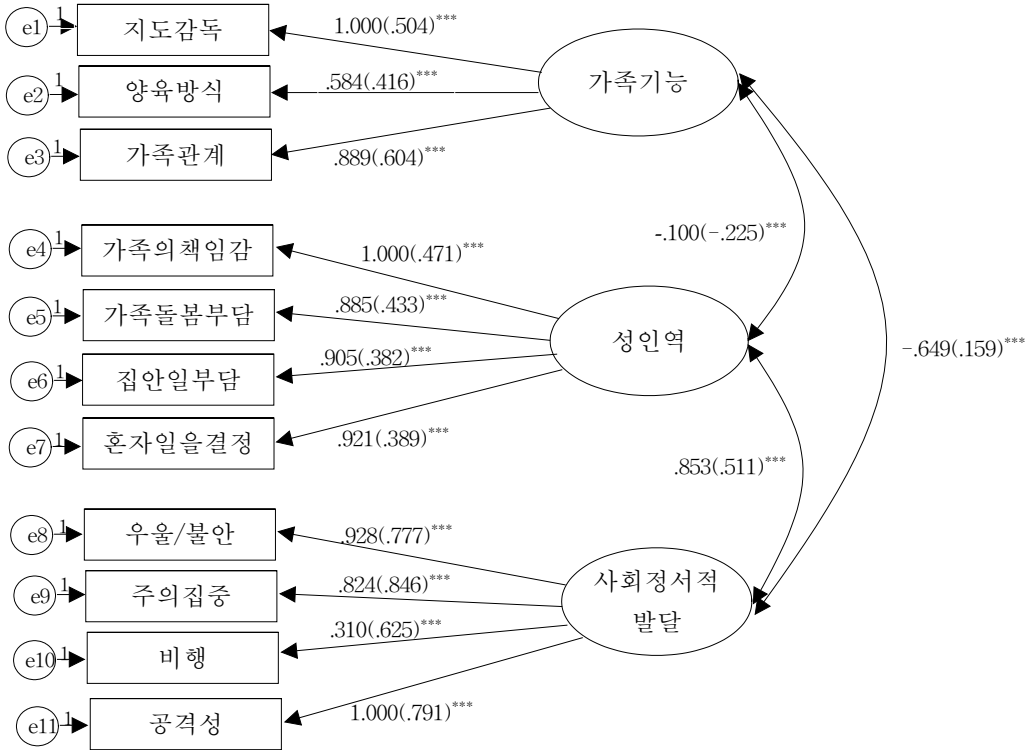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 성인역 부담, 사회정서적 발달은 이론적 개념(잠재변수)으로서 다중지표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이렇게 설계된 측정모형이 과연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검토하였다. 측정모형은 〈표 2〉, 〈그림 2〉, 〈표 3〉과 같다. 먼저 잠재변인들의 측정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인 적합도지수에서 좋은 적합도(GFI: 957, CFI: 914, TLI: 885, RMSEA: .070)를 보여 잠재변인의 측정모형은 경험

적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지수

모형	χ^2	GFI	CFI	TLI	RMSEA
측정모형	299.387(df=41, P=.000)	.957	.914	.885	.070



〈그림 2〉 측정모형 경로계수 :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구체적으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반영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중상관자승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R^2)과 요인적재량을 고려하여 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높고 요인적재량이 가장 높은 것을 준거지표로 삼았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이 〈그림 2〉와 〈표 3〉에 따르면, 가족기능과 성인역,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측정모형의 요인적재량

경로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오차	t값
지도감독←가족기능	1.000	.504		
양육방식←가족기능	.584	.416	.073	8.013***
가족관계←가족기능	.889	.604	.120	7.421***
가족의 책임감←성인역	1.000	.471		
가족돌봄의 부담←성인역	.885	.433	.109	8.129***
집안일 부담←성인역	.905	.382	.118	7.669***
혼자일을 결정←성인역	.921	.389	.119	7.745***
우울/불안←사회정서적 발달	.928	.777	.033	28.199***
주의 집중←사회정서적 발달	.824	.846	.027	30.255***
비행←사회정서적 발달	.310	.625	.014	22.192***
공격성←사회정서적 발달	1.000	.791		

***p<.001, **p<.01, *p<.05

3) 구조모형 분석

최적의 구조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델과 비교모델을 설정했다. 즉, 연구의 이론모형에서 설정한 모든 경로의 계수를 추정한 모형A를 기본모델로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주요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정서적 발달에 이르는 모든 직접 경로와 가족기능 및 성인역 부담에 이르는 간접경로를 모두 표시한 모델이다. 최초 기본 모델에서 핵심 경로 즉, 빈곤과 가족구조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직접경로와 가족기능, 성인역 부담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만을 남긴 보다 간명한 모형을 모형B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 모형 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모든 경로(p<.001)를 제거한 모형을 모형C로 명명하고, 앞서 추정한 모형A 및 B와 순차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간명하면서도 현실적인 적합성이 높은 최적의 모델을 추정하고자 했다.

먼저, 모형A가 경험적 자료를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적합도지수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χ^2 값은 519.150이며, 자유도는 82, p=.000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χ^2 값은 사례수의 영향에 민감한 적합도지수이니만큼 다른 적합도지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결과, 비교적 좋은 적합도(GFI: .947, CFI: .870, TLI: .833, RMSEA: .064)를 보여 모형A는 자료에 합치하는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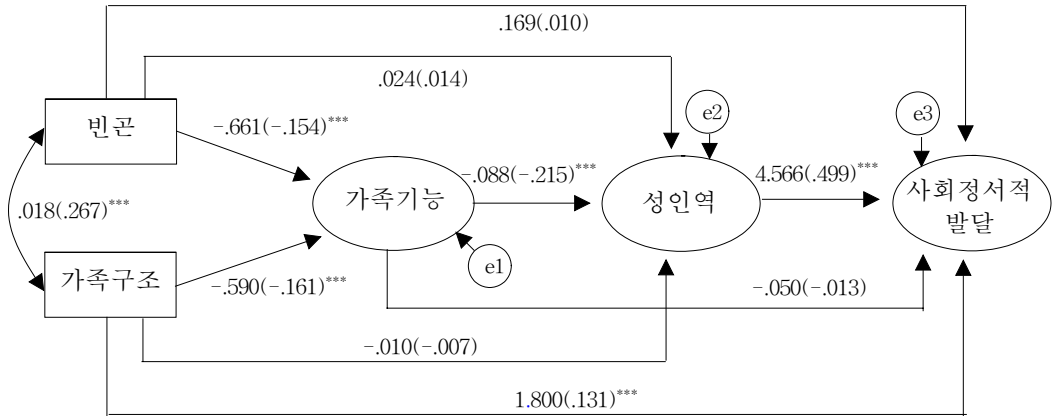
〈표 4〉 모형A에 대한 적합도지수

모형	χ^2	GFI	CFI	TLI	RMSEA
모형A	519.150(df=82, P=.000)	.947	.870	.833	.064

이러한 모형A의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는 .279로 모형A에 포함된 변수들이 최종산

물인 사회정서적발달을 27.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형A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개별 모수치와 경로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한 결과, <그림 3>와 <표 5>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그림 3> 모형A

경로계수 :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표 5> 모형A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사회정서적발달←빈곤	.169	.010	.512	.330
사회정서적발달←가족구조	1.800	.131	.438	4.105***
성인역←빈곤	.024	.014	.076	.315
성인역←가족구조	-.010	-.007	.065	-.151
가족기능←빈곤	-.661	-.154	.174	-3.804***
가족기능←가족구조	-.590	-.161	.148	-3.971***
사회정서적발달←가족기능	-.050	-.013	.168	-.297
성인역←가족기능	-.088	-.215	.025	-3.473***
사회정서적발달←성인역	4.566	.499	.578	7.898***
빈곤↔가족구조	.018	.267	.002	9.312***
사회정서적발달←아동성별	-.280	-.036	.218	-1.284
사회정서적발달←양육지원자수	-.131	-.024	.155	-.844

***p<.001, **p<.01 *p<.05

즉, 빈곤할수록 가족기능도 부정적이며(-.154), 가족기능이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성인역부담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15). 또한 아동의 성인역 부담이 많을수록 사회정서적발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은 것(.499)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모형에서는 빈곤이 성인역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빈곤과는 달리 직접적으로도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1). 또한 간접적으로도 가족기능과 성인역부담을 통하여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161). 즉,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있으면,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161), 가족기능이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성인역부담은 많아져-.215), 결국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499)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아동의 성인역할 부담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구조적 결손은 성인역할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 구금, 군입대, 직장 근무 등의 사유로 구조적인 결손이 생기면 아동들이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는 윈턴(Winton, 2003)의 논의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단, 빈곤과 가족구조간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빈곤이라는 고위험 상황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라는 위험이 중첩되면서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가족구조가 직접적 또는 독립적으로 성인역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성인역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빈곤이라는 고위험 상황과 맞물려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빈곤과 가족구조의 구조적 결손이라는 위험요소는 가족의 기능을 저해하고 이러한 역기능적 가족상황이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가중시켜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핵심적인 가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기본모형인 모형A에서는 빈곤과 가족구조 모두 성인역 부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가족기능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최적의 모델 추정

본 절에서는 모형A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떨어지는 경로 예컨대, '빈곤과 가족구조에서 성인역 부담에 이르는 경로'와 '가족기능에서 사회정서적 발달에 이르는 경로'와 같이 불필요한 매개경로를 제외한 모형을 모형B로 설정했다. 또한 기본모형 A에서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모든 직접, 간접경로들을 제외한 모형C로 설정하고 각 모형간 비교를 위해 카이제곱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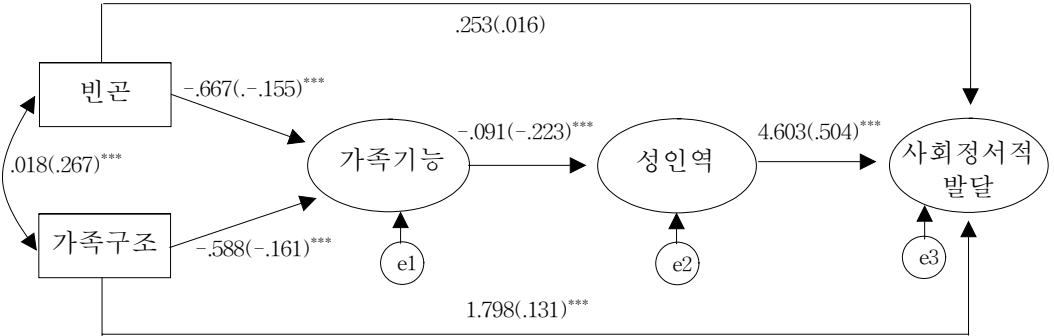
우선 모형B부터 전체적인 적합도를 평가해 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모형B에 대한 적합도지수

모형	χ^2	GFI	CFI	TLI	RMSEA
모형B	519.334(df=85, P=.000)	.947	.871	.840	.063

<표 6>에 따르면 모형B의 χ^2 값은 519.334, 자유도가 85이며, $p = .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적합도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947, CFI는 .871, TLI는 .840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RMSEA도 .063로 나타나 비교적 좋은 적합도를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모형B

는 자료에 합치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 모형B 경로계수 :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모형B의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SMC는 .281로 빈곤과 가족구조, 가족기능, 성인역 부담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모형A에 비해 0.2% 증가한 28.1%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와 〈표 7〉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모형B에서도 모형A와 유의미한 경로들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또한 모형A와 비교하여 가족구조가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계수가 .002(비표준화계수)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경로에서는 경로계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모형B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사회정서적발달←빈곤	.253	.016	.469	.541
사회정서적발달←가족구조	1.798	.131	.401	4.487***
가족기능←빈곤	-.667	-.155	.173	-3.847***
가족기능←가족구조	-.588	-.161	.148	-3.977***
성인역←가족기능	-.091	-.223	.023	-3.974***
사회정서적발달←성인역	4.603	.504	.559	8.235***
빈곤→가족구조	.018	.267	.002	9.312***
사회정서적발달←아동성별	-.281	-.036	.218	-1.291
사회정서적발달←양육지원자수	-.132	-.024	.155	-.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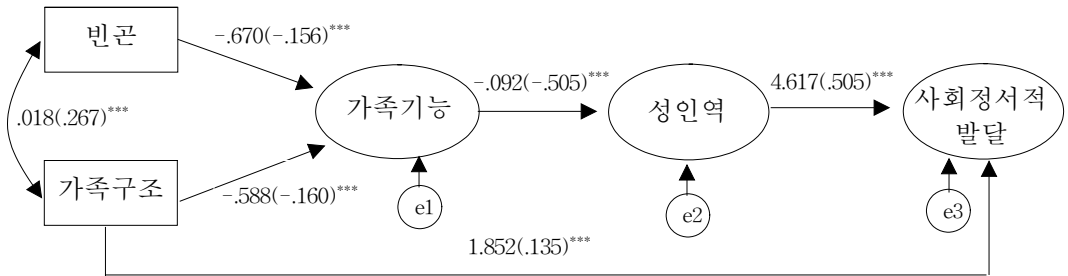
*** $p < .001$, ** $p < .01$ * $p < .05$

〈표 8〉 모형C에 대한 적합도지수

모형	χ^2	GFI	CFI	TLI	RMSEA
모형C	519.624(df=86, P=.000)	.947	.871	.842	.062

한편 모형C에서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유의미한 경로들만을 포함시킨 가장 간명한 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와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모형C의 적합도는 다음의 〈표 8〉과 같았다. χ^2 값은 519.624이며, 자유도는 86, $p = .000$ 으로 모형이 자료에 합치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적합도지수는 좋은 적합도(GFI: .947, CFI: .871, TLI: .842, RMSEA: .062)를 보여 모형C 또한 자료에 합치하는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빈곤과 가족구조, 가족기능, 성인역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28.1%로 모형B의 설명력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SMC : .281).



〈그림 5〉 모형C

경로계수 : 비표준화계수(표준화계수)

모형C의 개별모수치와 경로는 〈그림 5〉와 〈표 9〉와 같았다. 모형C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만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빈곤이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가 제외되었다.

〈표 9〉 모형C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t값
사회정서적발달←가족구조	1.852	.135	.388	4.779***
가족기능←빈곤	-.670	-.156	.173	-3.869***
가족기능←가족구조	-.588	-.160	.148	-3.972***
성인역←가족기능	-.092	-.225	.023	-4.014***
사회정서적발달←성인역	4.617	.505	.559	8.253***
빈곤↔가족구조	.018	.267	.002	4.526***
사회정서적발달←아동성별	-.273	-.035	.218	-1.252
사회정서적발달←양육지원자수	-.129	-.023	.155	-.834

***p<.001, **p<.01 *p<.05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모델 중에서 빈곤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메커니즘에 대해 보다 간명하면서도 자료에 부합되는 최적의 모형을 찾고자 카이자승치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모형비교에 있어서 한 모형이 다른 모형에 포함된 경우(nested)에는 카이자승치 차이검증(χ^2 difference test)을 사용한다. 즉, 카이자승치 차이검증(χ^2 difference test)을 통해 큰 모형을 채택할시 간명성을 상실하는 것보다 부합도 증가가 더 큰지를 검증하였다.

〈표 10〉 모형비교

모형	χ^2	GFI	CFI	TLI	RMSEA
모형A	519.150(df=82, P=.000)	.947	.870	.833	.064
모형B	519.334(df=85, P=.000)	.947	.871	.840	.063
모형C	519.624(df=86, P=.000)	.947	.871	.842	.062

우선, 모형A와 모형B, 모형C의 전반적인 적합도를 〈표 10〉을 통해 살펴보면 GFI와 CFI는 세 모형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모형B와 모형C가 모형A에 비해서는 TLI(모형B : .840, 모형C : .842)와 RMSEA(모형B : .063, 모형C : .062)에서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고, 자유도에서는 모형C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모형A와 모형B를 비교해 보면, 카이자승치 차이검증(χ^2 difference test) 결과 카이자승치차이값(모형B-모형A)은 0.184(df=3)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모형A의 부합도의 증가는 간명성의 상실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작은 모형인 모형B가 더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두 번째, 모형A와 모형C를 비교분석한 결과, 카이자승치차이값(모형C-모형A)은 0.474(df=4)로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모형A의 부합도의 증가는 간명성의 상실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작은 모형이 모형C가 더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모형B와 C의 비교에서는 카이제곱치차이값(모형C-모형B)은 0.290(df=1)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아 모형B의 부합도의 증가는 간명성의 상실 에 비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작은 모형이 모형C가 더 적합한 모형으로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세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모형C가 최적의 설명 모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주요한 경로가 빠짐없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론적인 설명력도 높은 최적의 모델로 평가된다.

4) 효과 분해

이에 모형C를 기반으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형C의 효과분해에 앞서 빈곤과 가족구조가 가족기능과 성인역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간접효과 경로를 검증하면 아래의 <표 11>과 같다.

빈곤은 가족기능을 통해 성인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062, $t=2.739$, $p<.01$), 가족구조도 가족기능을 통해 성인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054, $t=2.775$, $p<.01$). 또한 가족기능은 성인역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사회정서적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25$, $t=-23.361$, $p<.001$).

이를 통해 빈곤과 가족구조가 가족기능과 성인역을 통해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1> 모형C의 간접효과의 검증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	간접효과	표준화	t값
성인역←가족기능←빈곤	.062	.035	2.739**
성인역←가족기능←가족구조	.054	.036	2.775**
사회정서적 발달←성인역←가족기능	-.425	-.114	-23.361***

*** $p<.001$, ** $p<.01$ * $p<.05$

이에 구체적으로 모형C의 인과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에서와 같이 모형C에서 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평가해 보면 빈곤은 가족기능이나 성인역을 통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18 : 표준화계수).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효과는 .153으로, 구조적 결손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135)가 간접효과(.018)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모형C의 인과효과

	인과효과	빈곤	가족구조	가족기능	성인역
가족기능	직접효과	.670(-.156)	.588(-.160)		
	간접효과	.000(.000)	.000(.000)		
	총효과	.670(-.156)	.670(-.156)		
성인역	직접효과	.000(.000)	.000(.000)	-.092(-.225)	
	간접효과	.062(.035)	.054(.036)	.000(.000)	
	총효과	.062(.035)	.054(.036)	-.092(-.225)	
사회정서적 발달	직접효과	.000(.000)	1.852(.135)	.000(.000)	4.617(.505)
	간접효과	.285(.018)	.250(.018)	-.425(-.114)	.000(.000)
	총효과	.285(.018)	2.102(.153)	-.425(-.114)	4.617(.505)

인과효과 : 비표준화효과(표준화효과)

종속변수인 사회정서적 발달을 중심으로 변수별 인과효과를 비교해 보면 빈곤(.018), 가족구조(.153), 가족기능(-.114), 성인역부담(.505)으로 나타나서 빈곤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경로에 있어서 성인역부담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빈곤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서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나 빈곤 자체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결정적 위험요소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가족기능이나 성인역 부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나 구조적 결손 같은 고위험 가정에서 아동들이 불가피하게 담당할 수밖에 없는 돌봄노동이나 가사 노동이 아동의 성인역할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또는 선형적으로 가정했으나 이러한 과정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환경적 위험요소가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성인역 부담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가정의 성인역 부담의 문제'를 주로 다룬 선행연구의 주류적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한편 기존의 국내 빈곤 아동 연구들에서는 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긍정적으로 미친다는 결과가 상당수 나온 바 있었다(이상균·박현선, 2000).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빈곤과 가족구조가 사회정서적 문제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외국의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빈곤의 측정을 표본추출 단계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서비스 제공여부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사각지대의 빈곤아동들 즉, 심각한 발달문제를 겪을 수 있는 빈곤아동들이 오히려 제외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률표집하고, 사후적으로 가구원수와 가구당 소득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아동을 선별한 결과보다 정교한 빈곤측정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이론적 기대에 합치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5. 결 론

우리나라 빈곤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부재하거나 있더라도 장애나 질병으로 실질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족 내에서 다른 성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연구들은 빈곤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 성인역할에서 오는 부담까지 지어야 하는 아동들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성인역 부담이 어떠한 기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기존에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보다 많이 논의되었던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측면의 기제들과 본 연구의 주된 초점인 성인역 부담간의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선행연구의 논의에 기반하여 빈곤, 가족구조, 가족기능과 성인역부담의 관계를 모형화한 후에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자치구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조사를 실시하는 서울아동패널(SPSC)의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이라는 위험요소는 아동의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과 같은 사회정서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적 경로 외에도 빈곤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가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동의 성인역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적모델로 판명된 가장 간명한 모델에서 종속변수인 사회정서적 발달을 중심으로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 빈곤(.018), 가족구조(.153), 가족기능(-.114), 성인역 부담(.505)순으로 나타나서 빈곤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경로에 있어서 성인역 부담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성인역 부담은 부모 대신에 가족을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혼자 매사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부담들로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의 발달단계에서는 상당한 정서적 부담을 야기하는 내용들이다. 물론 이러한 가족 내 역할들이 때로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는 불가피한 것이고, 미리 철이 든 아동의 적응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위험 빈곤가족의 상황에서는 아동기 발달단계에 과부하로 작용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아동의 관점에서 부담스럽다고 호소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빈곤 아동에 대한 개입이 경제적 지원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가구 단위에서 특히 가족기능 지원과 강화의 형태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빈곤 아동 개입은 경제적 지원이나 현물지원 또는 아동의 학습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가구 단위의 지원도 대부분은 부모의 직업재활 지원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가족기능에 대한 고려는 매우 부족했

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인역 부담은 빈곤이나 구조적 결손에서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적 위험이 가족기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 역기능의 산물로 성인역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빈곤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이나 성인역 부담에 대한 개입전략에 있어 구조적 결손이 기능적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개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빈곤하면서도 아동학대나 알코올중독 등과 같은 문제가 동시에 있는 복합문제가정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족 기능을 지원하고, 역기능을 예방하는 개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과 같은 부모-자녀관계 지원과 부부치료와 같은 부부관계 상담 지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상담과 개입과 같은 정신건강 지원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인역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 전략의 필요성과 지침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중에 가장 전형적인 프로그램으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멘토링프로그램은 건전한 성인역할 모델 제공을 통해서 아동기 의존적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낙관적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는 개입이다. 따라서 빈곤 아동에게 멘토링이란 부모의 구조적 결손을 보완해 주면서 가족기능에 대한 보완도 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므로 직접적으로 성인역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회정서적 개입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외에도 가사도우미 서비스,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 등도 성인역 부담의 감소라는 개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실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일견 가사도우미서비스라고 하면 연로한 조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의 가사부담을 덜어주는 경성서비스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아동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실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돌봄 노동과 같은 성인역할에 참여해야 하는 아동들에게 노동시간이나 노력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방과후 공부방도 안전한 보호 및 지도감독 서비스라고 간주하면 단순히 학습지원 이상의 정서적 개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고위험 빈곤 아동들에게 안전한 보호환경에서 학습지원을 함으로써 정서적, 인지적 욕구 충족은 물론 성인역할 부담을 감소시키고, 역기능적 가족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결손가정에 대한 실천적, 예방적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빈곤을 비롯하여 가족 기능과 같은 주요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서도 사회정서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만으로도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선행연구들에서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일인에게 양육의 부담과 경제적 부담이 집중됨으로써 가족 기능상의 어려움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구조적 결손 자체도 사회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위험요 소인데다가 구조적 결손이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하여 가족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는 간접적인 위험요 소임을 고려할 때, 현재 문제를 보이고 있지 않은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예방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실천적 함의 외에도 본 연구는 빈곤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기존 국내 연구들에서는 빈

곤의 측정을 표본추출 단계에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나 소년소녀가장과 같은 서비스 제공여부로 규정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빈곤아동들 즉, 심각한 빈곤아동들이 오히려 제외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일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률표집하고, 가구원수와 가구당 소득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아동을 선별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상의 보완을 통해 빈곤과 가족 구조의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국내 연구들에서 논란이 되었던 빈곤의 부정적인 효과를 확인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

이상의 실천적, 이론적 함의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가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인과관계의 확신성에 있어서는 일정정도의 한계를 갖는다. 또한 성인역을 담당하는 아동들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성인역 부담만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도 일정정도의 한계를 갖는다. 즉, '돌봄노동'이나 '성인역 행위' 자체에 대한 논의를 생략하고 '부담'이라는 정서적인 측면만을 측정함으로써 갖는 한계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분석을 통해 인과관계 확신성을 높이고, 성인역할 행위 자체에 대한 분석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병인. 1998. "알콜중독자 가정의 성인아이들의 특징들". 『교육논총』 12: 172-195.
- 구인회. 2002. "부모의 실적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9: 1-21.
- 김진영. 1997. "역기능가정 성인아이의 우울수준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김홍운. 2000. "성인아이의 분노조절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류연규·최현수. 2003. "우리나라 아동빈곤율 수준과 변화경향". 『한국아동복지학』 16: 135-165.
- 배병렬. 2005. 『LISREL구조방정식모델-이해와 활용-』. 서울: 청람.
- 오계훈·김경근. 2001. "가족구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1(2): 101-123.
- 오승환. 2001.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 이혼·별거가족과 사망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7: 99-125.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 1998. 『K-YSR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은순. 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혜미. 2005. "경제적 곤란과 가족갈등이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3): 133-164.
- 이경혜. 2004. "부모빈곤과 부모양육 행동이 아동의 공격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5(5): 1-9.
- 이상균·박현선. 2000. "소년소녀가장의 성인역 아동(adult children)부담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6(1): 143-164.

- 이세영. 2000. "성인아이의 치유를 위한 목회상담적 접근".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tt, B., and G. Parker. 1998. "The parentified child: early competence or childhood deprivation?"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Review* 3(4): 146-155.
- Becker, S., J. Aldridge, and C. Dearden. 1998. *Young carer and their families*. London: Blackwell Science Ltd.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oszormenyi-Nagy, I., and G. M. Spark.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and Row.
- Bradley R. H., and L. Whiteside-Mansell. 1997. *Children in poverty*. in R. T. Ammerman, and M. Hersen. 1997. *Handbook of Prevention and Treat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John Wiley and Son.
- Briere, J. 1992. *Child Abuse Trauma-Theory and Treatment of the Lasting Effects-*. Sage publication.
- Brody, G. H., Z. Stoneman, D. Flor, C. McCrary, L. Hastings, and O. Conyers. 1994. "Financial Resources, Par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Parent Co-Caregiving, and Early Adolescent Competence in Rural Two-Parent." *Child Development* 65(2): 590-605.
- Celani, D. P. 1994. *Illusion of Lov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Chase, N. D. 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ed.). Thousand Oaks, CA: Sage.
- Conger, R., X. Ge, G. H. Elder, F. O. Lorenz, and R. L. Simons.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Duncan, G. J., and J. Brooks-Gunn. 1999.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Duncan, G. J., J. Brooks-Gunn., and P. K. Klebanov. 1994.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296-318.
- Eamon, M. K. 2001.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n Ecological Systems Approach." *Social Work* 46(3): 256-266.
- Felner, R. D., S. Brand, D. L. DuBois, A. M. Adan, P. F. Mulhall, and E. G. Evans.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66(3): 774-792.
- Godsall, R. E., G. J. Jurkovic, J. Emshoff, L. Anderson, and D. Stanwyck. 2004. "Why some kids do well in bad situation: relation of parental alcohol misuse and parentification children's self-concept." *Substance Use & Misuse* 39(5): 789-809.
- Jones, R. A., and M. Wells. 1996. "A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2): 145-152.
- Joreskog, K. G., and D. Sorbom. 1984. *LISREL-VI user's guide* (3rd ed.). Moo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Inc.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Lempers, J. D., D. Clark-Lempers, and R. L. Simons.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1): 25-49.
- Luthar, S. S. 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acCallum, R. C., M. W. Browne, and H. M. Sugawara.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 130-149.
- McLeod, J. D., and M. J. Shanahan.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51-366.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cLoyd, V. C., T. E. Jayaratne, R. Ceballo, and J. Borquez.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eredith, H. 1992. "Supporting the young carer." *Community Outlook* 2(5): 15-18.
- Newcomb, M. D. 1994. "Drug use and intimate relationships among women and men: Separating specific from general effects in prospective data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463-476.
- Pagani, L., B. Boulerice, and R. E. Tremblay. 1997. "The influence of poverty on children's classroom placement and behavior problems." pp. 311-339. in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 J. Duncan and J. Brooks-Gunn (E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ameroff A., L. M. Gutman, and S. C. Peck. 1993. "Adaptation among youth facing multiple risks: prospective research findings." pp. 364-391. in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childhood adversities*, edited by S. S. Luth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mpson, R., and J. H. Laub. 1994.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s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523-540.
- Valleau, M. P., R. M. Bergner, and C. B. Horton. 1995. "Parentification and caretaker syndrome: An empirical investigation." *Family Therapy* 22: 157-163.
- Wells, M., C. Glickauf-Hughes, and R. Jones. 2000. "Codependency: a grass roots construct's relationship to shame-proneness, low self-esteem and childhood parentific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7: 63-71.
- Winton, C. A. 2003. *Children as Caregivers -parental and parentified children*. Allyn and Bacon: Boston.

Adult-role Burden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Poverty

Park, Hyun-Su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 Ick-Joong

(Duksung Womens University)

Ku, In-Ho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poverty,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ing, burdens of adult roles and socio-emotional problems. It was especiall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rden of adult roles and socioemotional problems among children in povert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employed for analyses. The Theoretical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poverty and adult roles (for example, parentification and parentified children). Data came from the first wave of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and subjects consisted of 1,807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who were located at K-Gu in Seoul. Th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October 25th to November 20th in 2005.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congruent with the theoretical expectations. To find a more appropriate model, three kinds of structural models were hypothesized and analysed. In the most appropriate model which had a good model fit,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impacted on socio-emotional problems directly and indirectly.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socio-emotional problems was mediated by family functioning and burdens of adult roles. The same mediation process existed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socio-emotional problems also.

In brief, children in poverty or those who have a single parent are more likely to have impaired family functioning, which is likely to cause higher burdens of adult roles. In turn, those who have higher burdens of adult roles are more likely to have socioemotional problems.

In conclusion,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focusing on the burdens of adult roles or caretaker roles among children in poverty were discussed.

Key words: poverty, children of poverty, socioemotional development, adult children, parentification, parentified child.

[논문접수일 2006. 1. 12. 게재확정일 2006. 4. 18.]